

한국 근대문학의 시기 구분에 대한 일고찰*

—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 전개를 중심으로

이 용 옥**

요약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는 기획의 일환이다. 새로운 인식 틀을 가지고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그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근대와 현대 모두에 적용하고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과 '경험'>으로 설정하고,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 전개가 우리의 미적 세계관과 인식 태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1890년대를 근대의 시작으로, 1990년대를 탈근대적 징후가 나타나는 근대의 종언기로 논증하고,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기를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규정코자 한다.

근대의 대표적인 기술이 '신문'과 '기차'라면 탈근대의 대표적인 기술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다. '저장기술'과 '연결기술'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용자환경과 사용 지경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문과 기차의 사용자환경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위한 것이다. 반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자환경은 인간과 기술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강화경험을 주고 받으면서 주체와 객체, 대상과 대상화에 대한 탈근대적 관념이 발생할 수 있었다.

1990년대가 근대이면서 탈근대인 양면의 시기였듯이, 1990년대에 대중화된 컴퓨터와 인터넷도 근대에 탄생했지만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탈근대적 기술이다. 그리고 21세기 '컴퓨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메타버스'로 진화하면서 근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현대가 시작된다.

문학의 역할과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대문학 연구

* 본 논문은 현대소설학회 제 92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근대’를 객관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를 근대문학의 종언기로 선언하는 것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동시에, 새로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주제어: 근대, 탈근대, 근대문학, 기술 전개, 사용자환경, 사용자경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890년대의 근대적 징후
3.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 전개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근대(近代, modern)라는 말은 서구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으로 “최근의 혹은 현재의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 “지금의 시대”를 뜻하는 현대가 동시성을 지시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면, 근대는 전시대였던 중세와 ‘시기’를 구분하고 ‘다름’을 규명하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근대는 시대 개념과 가치 개념, 인식 개념을 모두 포괄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된다.

근대를 모태로 하는 근대문학의 개념 역시 시대, 가치, 인식의 변화가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에 중세문학과 구분되었다. 한국 근대문학 연구는 최초의 근대문학사라 할 만한 임화의 『신문학사』(한길사, 1993)²⁾ 이후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수선사, 1948), 조

1) R.R 퍼머 저, 강준창 외 역, 『西洋近代史 1』, 삼지원, 1988, 11-12면.

2) 임화는 1939년 9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조선일보」와 『인문평론』에 신문학과 관련된 5편의 글을 발표하는데 한길사의 단행본은 그것을 엮은 것이다.

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사, 1958), 김윤식과 김현이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김용식의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삼영사, 1977),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 1982) 등이 대표적이다.³⁾ 기왕의 문학사 연구는 많은 학문적 성과를 냈지만,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었다는 것과 근대문학의 시작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근대문학의 종언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0년 이후에 출판된 문학사 관련 저술만 살펴보다더라도 용어의 혼란은 여전하다. 권영민은 『한국현대문학사』(민음사, 1993)를 상재하면서 1896년부터 1945년까지를 1권으로, 1945년부터 1990년까지를 2권으로 나눠 논의하였다.⁴⁾ 2020년 개정판에서는 2권의 시기를 1945년부터 2010년까지로 확장한다. 손정수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틈새』(역락, 2005)에서 개화기 서사부터 이청준론까지 다루었고, 장석주는 『장석주가 새로 쓴 한국근현대문학사』(학교도서관저널, 2017)의 부제를 ‘이광수에서 한강까지 한국문학 100년의 탐험’이라 붙였다.⁵⁾

대부분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1945년 해방이나 1950년 한국전쟁을 현대문학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해방’과 ‘전쟁’이라

3) 그동안 간행된 한국문학사 논저를 단행본 기준으로 보면 일제시대 5권, 해방공간 6권,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까지 13권, 1970년대 16권, 1980년대 20권, 1990년 이후 19권, 북한문학사 11권, 중국간행 조선문학사 6권 등 총 96권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이 중 성과로 꼽은 것은 연구자의 판단이다.

4) 1990년대 초반에 문학사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저서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는데, 이재선의 『현대한국소설사』(1991), 김윤식·정호용의 『한국소설사』(1993),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1993), 김재용 외 3명이 공저한 『한국근대민족문학사』(1993) 등이다. 이 시기에도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5) 2000년 이후 박사학위 논문 중 ‘문학사’를 제목에 명시한 것은 두 편이다. 송성현의 「韓國文學史 記述 方法論 研究」(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와 이해우의 「한국근대문학사 기술방법 비교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2009)이다. 두 논문은 모두 ‘근대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는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장면 전환을 기준으로 삼아, 서술된 시점에서 멀고 가까움으로 근현대를 구분한 것일 뿐, 근현대 문학 사이에 미학적 차이를 드러내는 접근이라 볼 수 없다. 즉, 현재 기준에서 근대문학보다 좀 더 가까운 근대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대 문학과 변별되는 새로운 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5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한국문학이 시대, 가치,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근대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다. 대표적인 문학 연구자인 김윤식은 김현과의 공저로 펴낸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이후 단독 혹은 공저, 편저 등의 형태로 여러 권의 문학사 관련 책을 저술하였는데 논문과 평론을 모아 펴낸 『한국현대문학사: 1945-1970』(일지사, 1982)에서는 ‘해방 30년의 문학사정신사적 측면’을 첫 장의 제목으로 삼아 해방 이후 문학을 현대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읽혔지만, 『한국현대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92)에서는 신소설부터 1960년대 소설과 비평까지를 다뤘다. 문학 연구자들의 논문을 편저한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에서는 1900년에서 1970년대까지의 문학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각 시기에 일어났던 문예 경향을 기술하였고, 그 후 개정증보판을 낼 때마다 문학사 범위를 넓혔다. 『한국근대문학 연구 방법 입문』(서울대출판부, 1999)와 『한국근대문학사와의 대화』(새미, 2002)도 출간하였다.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의 혼재 혹은 혼용은 문학의 토대인 ‘근대’와 ‘현대’의 시대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와 시대구분은 역사적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와 직접 관계가 있다. 역사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의 단위, 즉 시대를 구분하는 일이다. 시대가 시간적, 공간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의식에서 비롯했다면, 시대 구분은 역사를 시간의 흐름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발전단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상황과 그와 다른 시대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시대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인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⁶⁾

문학과 문학사는 그 관계가 모순적이다. 문학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문학사는 그 흐름을 한 지점에 고정시키고 해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이라면 문학사는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지는 구심력이다. 그러한 둘 사이의 모순과 괴리가 끊임없이 문학과 문학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즉 새로운 문학적 사실의 발견이나 재해석은 새로운 문학사의 구성을 요구하게 되며, 또한 새로운 인식 틀의 출현은 기존의 문학적 사실의 재해석과 문학사의 재구성을 요구하기도 한다.⁷⁾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는 기획의 일환이다. 새로운 인식 틀을 가지고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그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⁸⁾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근대와 현대 모두에 적용하고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기술이 제공하는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으로 설정하고,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전개가 우리의 미적 세계관과 인식 태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1890년대를 근대의 시작으로, 1990년대를 탈근대적 징후가 나타나는 근대의 종언기로 논증하고,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기를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규정코자 한다.⁹⁾

6) 독일어 <시대 Epoche>는 원래 '멈춤', '제동'의 뜻이지만, 시대 구분의 개념으로 정착되면서 '분기점', 즉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사건을 의미하게 되었다.(라영균, 「문학사와 시대(구분)의 문제」, 『브레히트와 현대연구』 제34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16, 315-316면)

7) 이동재, 「근대성 담론과 한국 근대문학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66면.

8) 한국 문학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최초로 구분한 학자는 백철이다. 백철은 『신문학사조사』(수선사, 1948)에서 조선문학의 현대는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형성되었던 1923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부터 조선 신문학에 세계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는 주조가 형성되면서 조선문학의 특수성이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현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9) 기술전개(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변화)를 시대구분의 준거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은 익숙한 방식이다. 마셜 맥루한은 1962년에 출간한 저서 『구텐베르크 은하계』(The Gutenberg Galaxy)에서 인쇄기 발명의 영향과 그로 인해 인간의 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변화하

2. 1890년대의 근대적 징후

근대는 자연과학에서의 위대한 발견들, 산업화된 생산체계,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전, 강력해지는 국가와 거대한 사회운동 등을 포괄하며 이들 요인들이 빚어내는 소용돌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러 요소들이 소용돌이 속에 함께 혼재하기 때문에 근대에 대한 규정과 평가는 복잡성을 띠게 된다.¹⁰⁾ 특히 근대가 자생적으로 시작된 서구와 달리 한국처럼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온 경우 근대의 기점을 잡기는 더욱 어렵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근대 기원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으로 북경이 함락되고 ‘베이징조약이 체결되면서 중화사상에 기초한 전 근대적 세계관에 혼란이 초래되는 1860년 설,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경장이 발발한 1894년 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병약조약이 체결된 1910년 설이 있다.¹¹⁾ 서구의 근대 기원이 350여 년의 차이가 나는 반면 한국의 근대 기원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장 안에 위치해 있다.¹²⁾ 그만큼 우리의 근대는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시작되었다. 주도 세력의 차이가 있지만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경장〉이 조선 내부의 자발적 의지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면 전후의 두 기원설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부 조건이 조선에 영향을 준 것이기에 근대의 기원으

였는지를 탐구하였다. 맥루한은 인쇄기가 전근대 사회의 구술 문화에서 근대의 시각 문화로의 전환을 알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주장한다. 인쇄된 단어가 사람들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새로운 형태의 선형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맥루한은 책 전반에 걸쳐 미디어의 변화를 다양한 역사적 시기의 지표로 삼아 각 시대의 주요 특징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당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이 연구 방법은 문학사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 10) 김한식, 「현대문학사 기술에서 ‘근대’를 보는 관점의 비교 연구」, 『어문논집』 제37호, 안암어문학회, 1998, 214면.
- 11) 1919년 3.1만세운동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광수의 『무정』(1917)이 최초의 근대문학이라는 테제가 공인된 근대문학사에서는 논쟁에 한계가 있다.
- 12) 서구의 근대 기원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1436년 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20년 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 설이 일반적이다.

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신문’과 ‘철도’라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다. 근대의 탄생에 기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이며, 최초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된 경인선이다. 1890년대는 바로 신문과 철도가 본격적인 근대의 산물로 조선의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근대의 시작과 끝을 1890년과 1990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근대를 대표하는 대중매체인 신문과 견줄만한 미디어 기술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상화된다. 바로 컴퓨터이다.¹³⁾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기술 코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문과 컴퓨터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편집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할 수 있는 기술이며,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을 필요로 하는 ‘저장기술’이다.

신문이 정적인 의식혁명을 통해 근대를 열었다면 철도는 동적인 시공간 혁명을 통해 근대를 추동했다. 탄생하자마자 바로 철도는 혁명과 진보의 상징이 된다. 철도의 등장으로 당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근대성과 명실상부하게 조우하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 조선 각지로 인적 물적 교류가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동시성’의 감각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신문은 철도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유포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유대감은 이제 좁은 이웃을 넘어 철도가 이어주는 다른 도시로까지 뻗어갈 수 있었다. 철도는 한편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철길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전통적인 도시가 쇠락하고 신흥 도시가 갑자기 생겨났다. 한편, 철도 시설 자체가 새로운 공간이 되기도 했다. 철도 역사는 신문의 문화 공간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광장으로, 신문물을 접하는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¹⁴⁾

13) 본 논문에서 ‘컴퓨터’는 컴퓨터 일반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개인용 컴퓨터’만을 특정한다.

근대 초기 철도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서술한 위 문단에서 철도를 인터넷으로 바꿔놓고 읽어도 전혀 문맥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철도와 인터넷이 모두 주체와 공간을 연결해주는 ‘연결기술’이기 때문이다. 철도 역사를 의미하는 플랫폼(platform)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두 기술 사이의 유비(analogy)는 설명될 수 있다.

신문과 철도가 근대를 상징하는 기술이라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탈근대를 대표하는 혁신적 기술이다. ‘저장기술’과 ‘연결기술’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1990년대가 근대이면서 탈근대인 양면의 시기였듯이, 1990년대에 대중화된 컴퓨터와 인터넷도 근대에 탄생했지만 근대를 넘어서기 위한 탈근대적 기술이다. 그리고 21세기 컴퓨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메타버스로 진화하면서 근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현대가 시작된다.

1990년대를 근대문학의 종언기라 선언하려면 100년의 시간을 두고 근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여단은 기술 전개의 양상, 즉 ‘저장기술’과 ‘연결기술’의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이 우리의 근대성 체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근대와 탈근대의 기술 전개

인간과 기술이 함께 발전한다는 공진화의 관점에서 두 개체 사이의 접점은 ‘환경’과 ‘경험’이다. 인간과 기술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환경이며, 경험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 의해 전개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과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지게 된 배경에는 컴퓨터와 발명과 소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기술과 삶의 변화』, 2005, 43-50면.(편집)

소프트웨어의등장이 있다. 근대에는 ‘환경’과 ‘경험’으로 표현되던 개념에 ‘사용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지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가 재설정되면서부터이다.¹⁵⁾

1993년 『Cognitive Science』 저널에 인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학문적인 논의가 벌어졌다. 이 논쟁은 “인지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그 인지의 과정이 변화하고, 또한 인지과정 자체가 시스템이나 상황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¹⁶⁾ 컴퓨터에서 시스템과 서비스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정식화되고 완결된 논리적 도구가 아니며 개별 사용자의 경험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주체는 컴퓨터 환경과 경험의 일부가 되며, 컴퓨터는 주체의 환경과 경험의 일부가 된다.

하이데거의 실존하는 인간과 도구의 존재론에 기대어 인간과 도구의 본연적 관계 양상을 살펴보면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은 것’ 사이의 인지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도구 사용 상황에서 도구는 도구에 의탁해 펼쳐지는 인간의 실존적 행위와 거리 없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위와 관계 맺고 있다. 예컨대 내가 신문을 읽고 있는 경우 신문 그 자체는 나와 하나가 되어 나의 독서행위를 진행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순조롭게 도구를 사용하며 행위하고 있을 때, 도구는 우리의 행위와 분리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신문은 내 재적으로는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이 있지만 행위자인 인간에게 인지

15) 인간과 기술이 상호 영향 하에 함께 진화한다는 공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사용자’에는 ‘인간’만이 아닌 ‘기술’도 포함한다.

16) D. A. Norman, “Cognition in the Head and in the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ituated Action”, *Cognitive Science*, Vol.17, pp.1-6, Jan.-Ma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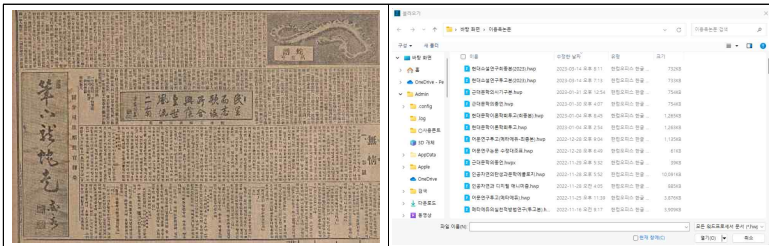
되지 않는 것은 인간과 신문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문자를 읽는 관습적 행위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신문을 넘기는 행위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읽는다. 그러나 컴퓨터로 문서를 읽는 행위는 전혀 다르다. 읽기 위해서는 대상의 사용자환경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해야 하며 그 행위를 통해 발생한 사용자경험을 자신의 인지 체계 안으로 가져와 해석해야 한다. 도구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지각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도구가기를 멈춘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순조롭게 녹아 들어가며 펼쳐지는 도구의 사용맥락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로서 눈에 띄며 지각되어 대상화되기 때문이다.¹⁷⁾ 동일한 저장기술이지만 신문은 도구로 인식되지 않는 반면 컴퓨터는 도구로 인식된다. 도구로 인식되어야 행위를 통한 실천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이것이 사용자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기차의 사용자환경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위한 것이다. 신문은 전통적인 코덱스 방식과 인쇄기의 관형에 맞춰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고, 기차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공간을 디자인하고 좌석을 배치했다. 근대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인간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었고, 도구가 대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용자환경을 도구에 적응해갔다. 반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자환경은 인간과 기술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주체(인간과 비인간을 포괄)는 상호 작용과 강화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주체와 객체, 대상과 대상화에 대한 탈근대적 관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17) 이종관, 「스티브잡스와 하이데거의 은밀한 조우」,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70집, 한국현상학회, 2016, 107면.

1) 기억의 내면화와 외재화 : 신문과 컴퓨터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신문과 컴퓨터의 공통점은 기억을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사뭇 다른데 신문이 ‘읽는’ 것이며 타자의 기록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라면, 컴퓨터는 ‘쓰는’ 것이고 자신의 기록을 타자의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왼쪽 사진은 이광수 『무정』 1회가 실렸던 <매일신보(1917.1.1.)> 지면이고, 오른쪽은 아래한글의 불러오기 창이다. 신문을 읽는 독자는 이광수의 기록을 읽고 자신의 신체에 저장하지만, 아래한글의 사용자는 자신의 기록을 타자의 신체(컴퓨터의 하드와 메모리)에 저장한다. 동일한 저장이지만 하나는 기억으로 시간성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디렉토리로 디자인된 공간성에 문자로 표시된다. 시간에 따라 기억은 퇴색하지만, 공간에 표시된 시간은 매년 갱신되며 기억은 항상 수정된다.

그러나 신문과 컴퓨터의 탄생 배경은 분명 근대적이었다.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 논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 디 조선 속에 있는 너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혀여 아시게 호노라. 우리는 첫지 편벽

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당에도 상관이 업고 상하귀천을 달니 디접 아니한 고 모도 조선 사름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의게 말 홀터 인디(中略).....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빅성의게 전홀 터이요, 빅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홀 터이니,(中略)..... 이 신문 출판 하기는 취리 하 라는 게 아닌고로 갑슬 헐허도록 하였고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 하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또 귀절을 제여 쓰기는 알어 보기 쉽도록 흠 이라.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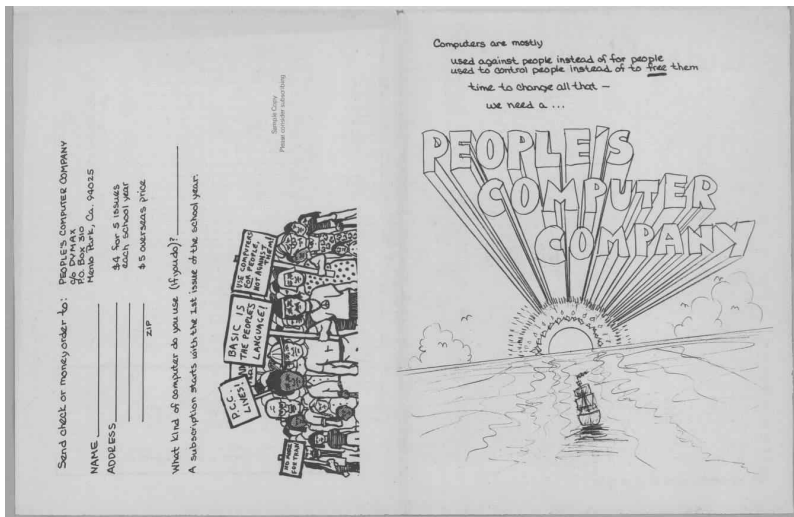
「독립신문」의 창간 취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이 논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을 저렴하게 했고 모두 한글로 써서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했으며, 또 구절을 띄어 써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라는 문장이다. 한문이라는 중세 권력어를 배제하고 남녀 상하 신분 귀천 없이 읽게 하겠다는 선언은 중세에서 벗어나 근대로 향하는 신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¹⁹⁾

신문과 필적할만한,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길목에 중요한 미디어가 바로 컴퓨터이다. 원래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는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다. 1981년 8월 12일 미국 IBM이 'IBM PC 515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PC)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그 시작은 리 켈젠스타인과 그가 속했던 홈브루 컴퓨터 클럽(Homebrew Computer Club)이었다. 클럽에 모인 엔지니어와 해커들이 꿈꾸었던 것은 컴퓨터를 대중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컴퓨

18) 우리역사넷, 「독립신문 창간 논설」,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 근대를 대표하는 문자매체인 신문과 부르주아, 산문문학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18세기 시민계급의 대두와 함께 귀족과 부르주아간의 갈등이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신문은 점차적으로 궁정의 관보적인 기능에서 계급 갈등을 표출하는 정치적인 논의를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르주아의 당파성과 욕망,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산문문학이 신문의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 초기 신문연계소설은 산문문학의 핵심적인 형식이었다.

터를 대기업이나 정부와 군대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하고 그 편의성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전이 공유됐고,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인 오스본(Osborne 1)의 개발로 이어졌다. PCC(People's Computer Company)는 조직이자 뉴스레터였는데, 1972년 10월에 발행된 첫 번째 뉴스레터에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소개했다.²⁰⁾



Computers are mostly used against people instead of for people; used to control people instead of to free them; Time to change all that - we need a...

컴퓨터는 대부분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에게 해를 끼치는데 쓰인다. 민중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가 왔다. 우리는 필요하다.²¹⁾

20) 컴퓨터 네트워크의 최초 명칭이 '뉴스레터'였던 것은 분명 '뉴스페이퍼'를 염두에 둔 것이다.

21) https://en.wikipedia.org/wiki/People%27s_Computer_Company

PCC는 개인용 컴퓨팅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컴퓨터는 인종, 계급 및 환경에 의해 방해받는 사람들에게도 편견 없이 동일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평등한 기술이며 '자유시민사회'라는 근대의 이상을 실현 시켜 줄 확실한 기술로 평가했다. 신문과 컴퓨터의 탄생 배경이 근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음을 상기해보면 신문과 컴퓨터는 분명 근대적 도구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탈근대적 성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신문과 컴퓨터 사이에 기억 저장 기술로 등장한 것이 타자기이다. 원래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고안되었던 타자기의 혁신적인 특징은 빨라진 속도가 아니라 공간이 정해지고 따로따로 떨어진 부호이다. '고정된 문자'가 아니라 흐르는 이미지로서의 말이 문자 키의 공간적 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하학적 모양으로서의 말'로 변화한 것이다. 타자기의 키는 그것이 만들어 내는 원고와 정비례를 이룬다. 키를 한번 누르면 문자 하나가, 키를 세게 치면 더 진한 문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표와 기의를 직접적인 대응으로 연결하는 의미 작용 모델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기표는 영구적으로 새겨져 개별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동이 없다.²²⁾ 즉 타자기는 출력장치는 신문을 모방했지만 입력장치는 컴퓨터에 모방당한 과도기적 기록 기술이다. 컴퓨터의 탈근대성은 입력장치인 키보드에서 출발해 마우스에서 완성된다. 마우스는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물성을 갖고 있으나 그 작동 원리는 인간의 손을 가상화해 모니터 화면에 시각 이미지로 표시해 줌으로써 신체의 가상화를 구현하는 탈근대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컴퓨터는 이미지로서의 말을 회복시키고 강화했다. 주체 '나'는 물질적 저항력을 가진 텍스트가 아니라 전자 이미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단순한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 작용 모델을 내 정신뿐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서 받아들인

22) 프리드리히 키틀러 저, 윤원화 역, 『기록시스템 1800.1900』, 문학동네, 2015, 190-197면 (편집)

다. 나는 텍스트가 시각적 전시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으로 존재했다면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운동 감각적으로도 안다. 나는 명멸하는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함으로써 현존과 부재 대신 패턴과 임의성을 더욱 현실적이고 적절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습관을 내 신체에 각인하는 셈이다.²³⁾

“기표와 기의는 일대일 대응한다”는 소쉬르의 언어 규칙성은 “기표와 기의가 계속 미끄러진다”는 라캉과 “기표와 기의는 차연된다”는 데리다의 〈유희〉 개념을 거쳐 후기구조주의이론으로 발전했지만 컴퓨터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운동감각과 인지적 사실로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다.

경험이란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든 과정이며, 생명체와 그것이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국면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수행될 때 상호작용을 참여와 소통으로 변형시키는, 유기체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표식이며 선물’이다.²⁴⁾ 신문을 읽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지면을 읽고 넘기는)은 고정된 시공간에서 인간이 선험적 객체로서 존재하는 기술(인쇄술)을 시각을 사용하여 경험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에서 기술이 후경화된다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기술을 직접 조작하고 경험함으로써 도구로 대상화하고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과정이기에 기술은 전경화된다. 듀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문을 읽는 행위가 무심한 행동(doing)들의 조합인 단순 경험(experience)이라면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은 시작과 끝이 있는 완전한 경험(an experience)이다.²⁵⁾

23) 캐서린 헤일스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9, 65면.

24) 존 듀이 저,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20, 34-45면.(편집)

25) 물론 듀이의 실용주의는 인간이 물질에 가하는 행위 즉 경험을 통해 발생된 결과와 변화를 진리로 보는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비물질적 도구와의 상호작용까지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컴퓨터과학 분야의 사용자환경에 관한 논문

신문과 컴퓨터의 HI(인간-환경) 상호작용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구분	신문	컴퓨터
읽기 방식	집중적 독서(135°)	분산적 독서(90°)
형태	코덱스와 면(page)	스크롤과 창(window)
편집 방식	스크랩	Ctrl CV
메커니즘	기억의 저장	기억의 확장
재료	종이와 문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작업환경	모노테스킹	멀티테스킹
사용자환경	문자중심환경	그래픽중심환경
기반	신체의 물질성	신체의 가상성
사용자경험	물리적 접촉	의식적 접촉
구조	층층(누적적, 계층적)	겹겹(활성, 비활성)
형식	텍스트	하이퍼텍스트

이제 신문과 컴퓨터가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문학 시장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근대 초기 문학시장의 교환 장치로서 신문·잡지는 문학의 일상화를 독려하며 문학시장의 사이즈를 넓혀나가는 데 기여했다. 제작·유통이 부정기적이고 일회적이었던 단행본과 달리 신문·잡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고 확대하는 일에 신문·잡지는 단행본보다 유리한 면이 적지 않았다. 요컨대, ‘문학시장의 근대적 전환(modern transformation of literary marketplace)’이란 문학을 둘러싼 諸 관계에서 문학시장이 중심화됨으로써 자본주의적 관계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제고되었던 것을 말한다. 이 근대적 전환은 적어도 네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첫째, 문학 관념의 재구조화, 둘째, 식민지 정치체제의 압력, 셋째, 글쓰기와 독서의 대중화, 넷째, 문학의 물질적 변혁이

에서 존 듀이의 실용주의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거이다.

다.²⁶⁾ 특히 글쓰기와 독서의 대중화는 중세까지 소수의 지배계급이 독점했던 문학장에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다. 명문가 출신이었던 최남선과 가난한 평민의 아들인 이광수가 근대문학의 맨 앞자리에 나란히 놓일 수 있었던 것은 신문과 잡지라는 뉴미디어 덕분이었다. 특히 1890년대에 창간된 『독립신문』과 『매일신문』 등의 한글 전용 신문의 등장은 근대적 문체 형성과 글쓰기 방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국문’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한 글쓰기는 말하기와 더불어 근대계몽기 새로운 문화현상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바야흐로 근대적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글을 써서 신문이라는 공론장에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시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신문이라는 제도가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독립신문』과 『매일신문』 등에서는 신문사에 많은 독자들이 투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반드시 ‘국문’으로 하되 거주와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²⁷⁾ 문학시장의 근대적 전환은 문단의 재편을 추동했다. 신분제 대신 시장경제의 원리가 문단을 지배함으로써 문학의 전문화·직업화가 야기되었다. 현상문예와 동인지 등을 통해 작가를 선발하고 인준하는 등단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문단은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²⁸⁾ 근대 초기 문학이 화폐로서의 교환가치를 갖게 되면서 글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과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같은 새로운 문학 제도의 등장은 소수 사대부 남성 중심의 자기유희적이며 폐쇄적인 중세 문단의 종언을 의미했다.

컴퓨터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학시장을 형성했다. 1992년 「천리안」과

26)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15면.

27) 이재봉,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와 근대의 글쓰기」, 『한국문학논총』 제 45집, 한국문학회, 2007, 280면.

28) 유석환, 같은 논문, 147면.

「하이텔」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게시하면서 PC통신시대가 개막되었고, ‘산책길’, ‘글나라’, ‘이야기마을’ 등의 문학동호회와 ‘하이텔문학관’, ‘천리안문단’ 등의 문학 게시판이 개설되면서 현실공간에서는 <PC통신문학>으로, 가상공간에서는 <사이버문학>이라 개념화된 새로운 문학장이 형성되었다. 근대문학 초기 동인이 결성되고, 동인지가 발간되고, 신문 연재소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일련의 과정이 <사이버문학>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²⁹⁾ 1968년 동갑내기 김영하와 박민규에게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준 공간이 PC통신공간이며, 그 둘의 문학이 확실히 이전 시대의 문학과 ‘상상력’, ‘문체’, ‘방식’이 다르다면 그건 분명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과 상호작용의 힘이다. 사이버문학의 탈근대성은 분명하다. 무명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익명의 그늘에 모여 로맨스, 무협, 환타지, 추리, 공포 등의 하위문학을 마음껏 탐닉했다. 등단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선발된 인텔리 작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공간의 문학장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일탈의 즐거움이 사이버문학을 통해 마음껏 발현되었다.³⁰⁾ 소수의 작가만이 글을 쓰는 시대에서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로 변모하였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위계와 구분은 초작가/초독자, 작독자 등 빗금을 지우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영역화 됐다. 1990년대 사이버문학은 전업작가와 아마추어작가 구분 없이 조회수와 평판을 교환가치로 가지며 편집권이 저작권을 압도하면서 근대적 문학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근대 초기에 중세 문단을 해체했던 것과는 반대

2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를 참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탄생과 공존의 인문학 -90년대 사이버문학론을 중심으로」(『문화기술의 융합』 vol.7, no.4,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30) 이인직의 『혈의누』 자리를 이우혁의 『퇴마록』이 대체했고, 이영도와 듀나가, 송경아와 김영하가 병존했다. 물론 이광수의 『무정』을 대체할만한 사이버문학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당연한 일이다. 사이버문학은 탈근대문학이지 현대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귀여니와 윤이수를 거치며 사이버문학이 웹소설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은 문학의 진화라는 입장에서 달가운 현상이 아니다.

방식으로(등단제도와 교환가치를 무력화하는) 기존 문단을 해체시켰다.

신문과 컴퓨터 모두 사각형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었다. 기억을 저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집중형 독서를 통해 기억을 내면화할 수 있을 뿐 상호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신문에 비해, 컴퓨터는 신체를 가상화하여 기억을 아예 인간 신체 외부에 존재하게 해줌으로써 인간과 기술을 주체화하였다. 사용자환경과 사용자 경험이 모두 상호작용을 전제도 디자인되고 설계되면서 인간과 신문이 가졌던 ‘주체-객체’ 관계는 ‘주체-주체’의 관계로 탈근대화된다.

컴퓨터 글쓰기 초창기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편집’과 ‘날아감’이었다. 텍스트의 물리적 신체가 정보 기술과 만나면 정보에 잠재된 임의성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패턴을 파괴할 위험에 처한다. 인쇄 텍스트가 디지털화되면 컴퓨터가 텍스트의 신체를 산산조각 내서 복잡하게 엮고 엮히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데이터 매트릭스로 재조합하여 왜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³¹⁾ ‘편집’의 공포다. ‘날아감’은 내면의 기억을 전적으로 컴퓨터의 외재적 기억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기억의 삭제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편집’과 ‘날아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현상이 기술의 진보로 불가능해졌거나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자의 근대성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읽기’와 ‘쓰기’가 분절화되지 않고 동시성을 갖게 됨으로써 근대신문과 잡지, 단행본이 강제했던 문자의 확정성이 무너지자 두려움도 사라졌다.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래한글 화면에 나타나는 빨간줄이다. 도구가 우리의 글쓰기에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가 되어 ‘나’와 ‘기술’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탈근대적 장이 되었다.

31) 캐서린 헤일스, 같은 책, 89-90면.(편집)

2) 자연을 대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기차와 인터넷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근대의 발명품 중에서 시계와 기차는 근대계몽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메타포이다.³²⁾ 근대적 시간에 의해 포획되기 이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간은 '농촌의 시간'이었다. 날짜와 연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촌의 시간은 순환적인 시간이고 반복되며 자연의 리듬에 따라 슬그머니 움직이는 시간이다.³³⁾ 그러나 기차와 철도가 등장하자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기계적 반복은 일상화됐고 시계와 시간표에 맞추어 자신의 신체와 행동을 조절하는 근대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 형이 탄생했다. 문명개화의 상징인 기차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조선 팔도를 누볐고 기차가 표상하는 '속도의 정치학'은 근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문명의 표상이다.³⁴⁾ 조선에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땠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글이 경인선 개통을 축하하는 기사의 형태로 1899년 9월 19일 자 「독립신문」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를 각기 방 한 칸씩 되게 만들어 여러 수레를 철구로 연하여 수미상접하게 이었는데, 수레 속은 상중하 3등으로.....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는 것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대한 이수로 80리 되는 인천을 순식간에 당도하였는데 그곳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

32) 근대적 시계의 보급은 시간을 더 이상 자연의 주기에 기반에 둔 순환적인 개념이 아닌 직선적이고 잘게 분할되며 무한히 등분할 수 있는 기계적 개념으로 전복시켰다.(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1)

33) 자크로 고프 저, 유희수 역, 『서양 중세 문명』, 문학과지성사, 1992, 214면.

34)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9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202면.

찬란하여 진실로 대한의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더라.

최초의 기차가 조선에 편입되었을 때, 대다수의 진근대적 시야에 놓인 근대적 풍경으로서의 기차는 새로움과 신세계에 대한 경이 그 자체였다.³⁵⁾ 기차는 사회적, 공간적 거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우연한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즉, 기차에서는 계층, 신분, 연령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교차한다.³⁶⁾ 기차가 공간이라면 철도는 네트워크이다. 철도는 근대인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혹은 감각을 변화시켰다. 이전까지 자연의 흐름과 조건에 결박되어 있었던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식체계와 감각을 창출하였다. 표준적이고 규칙적인 기차 운행 시간과 운행 시간표는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균질화하고 통일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같은 시간과 시간표를 공유하는 국민공동체를 형성하여 국민국가를 완성시켰다. 철도를 따라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자연적 풍경이 아니라 내 눈 앞에 나타났다. 금세 사라지는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파노라마 영상이며 인간중심적 응시의 대상이 되었다. 철도는 자연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세계를 막내리고 자연 위에 등극하는 세계를 열었다.³⁷⁾

기차와 철도라는 근대 연결기술은 주체와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자연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자연은 파헤쳐지고 뚫리고 훼손되었으며, 철도는 인간이 자연 위에 부설한 근대의 혈관이 됐다. 철도는 자연의 온갖 굴곡들을 매끈하게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철도의 감수성은 신문의 감수성과 다르지 않다. 신문은 이질적인 사건들을 신문지라는 하나의

35) 노용무, 「한국 근대시와 기차」,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7, 105면.

36) 손예희, 「근대의 기차를 통한 상상적 시읽기 교육 방법 연구」, 『교사교육연구』 58권 3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9, 300면.

37)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림, 2003, 5면.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개별 사건마다 가지는 이질적인 차이들을 신문 속의 사건이라는 균질한 형태로 환원해 버린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든 신문은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그것들의 일정한 배치로 번역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기차가 전통적인 공간에 가했던 것과 같은 균질화의 움직임이다. 비동시적인 것들을 동시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신문의 힘은 기차와 철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근대 삶의 공간에서 발휘된다.³⁸⁾

인터넷 역시 근대 기술이다. 기차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공간에서 만나는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공간으로 비추지만 1등칸과 3등칸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화폐자본주의’ 공간이라면 인터넷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조건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환경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가 권력을 형성하는 ‘기술자본주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 기술은 겹쳐진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체와 공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철도와 같지만, 자연의 대상화 방식에서 갈라지면서 탈근대성을 보인다. 철도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재영역화였지만, 인터넷은 자연을 인공적으로 재창조했다. 인공자연의 역사는 인터넷의 탄생에서부터 비롯된다. 초창기 인터넷은 뉴스그룹이나 유즈넷과 같은 도스 환경 문자 중심의 P2P 서비스에 불과했다. 유즈넷은 각각 뉴스그룹의 명명규약과 유즈넷 메시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뉴스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공통되는 것이 없는 자유로운 정보교환 커뮤니티들의 광대하고 산개한 집합이다. 그 기본단위는 뉴스그룹으로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레드(Thread) 형식의 토론이다. 처음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과했던 인터넷의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월드 와이드 웹은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원이던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해 개발됐다. 월드 와이드 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 기능이다. 링

38) 오창섭, 「미디어와 근대적 디자인 수용 주체의 형성 - 기차와 시계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Vol.22 No.5, 한국디자인학회, 2009, 106면.

크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와 연결되는 개념인데, 웹 브라우저를 통해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멀티미디어를 하이퍼 링크(Hyper Link)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둔 채 활용도만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WWW로 인해 흑백이었던 인공자연은 총천연색을 갖추게 되었으며, 주체, 공간, DB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자연이 되었다.

구분	도구	기술	특징	기술	주체-도구	리얼리티
1세대 인공자연	인터넷	WEB	교환	하이퍼텍스트	분리	VR(가상현실)
2세대 인공자연	스마트폰	APP	교류	터치스크린	결합	MR(혼합현실)
3세대 인공자연	메타버스	AI	교감	가상의 신체화	투명	CR(연결현실)

인공자연이 자연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려면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물, 불, 공기, 흙 같은 자연의 4원소처럼 인공자연도 비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원소가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자연의 4 원소와 대응하는 인공자연의 4 원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³⁹⁾

자연의 4 원소	인공 자연의 4 원소	역할
불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자연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강렬한 영감
공기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자연을 감싸고 있는 환경
물	알고리즘(Algorithm)	자연의 탄생과 발전을 추동하는 흐름
흙	데이터베이스(Database)	자연을 이루는 단단한 토대

인터넷은 인공자연의 4원소로 탄생하였으며, 물질적 토대와 비물질적 토대의 차이로 인해 인위적 자연인 철도와 인공적 자연인 인터넷은 근대와 탈근대로 구분되어 진다. 기차가 연결하는 공간은 면과 선으로 구성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며 물성을 갖지만 인터넷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3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인공자연의 탄생과 문학 에콜로지—공진화와 상호강화경험의 아르투라」(『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를 참조할 수 있다.

비물질적 공간이며 개인과 공간의 연결 역시 이동성(mobility)이 아니라 맥락성(contextuality)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차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양쪽 공간을 시간의 동시성으로 연결하지만, 인터넷은 출발과 도착이라는 근대적 시간관이 작동하지 않는 탈근대적 공간이기에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탄생시켰다.⁴⁰⁾

인터넷은 공간이며 동시에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비기하학적이고 탈영토화된 공간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획되고 정형화된 공간은 벽, 울타리, 울타리 사이의 길들에 의해 흠뻐어진 반면, 유목적 공간은 매끄럽고 꺾적들에 의해 지워지고 자리를 바꾸는 자질들에 의해서만 표시된다. 여기서 공간의 성격을 의미하는 ‘흠뻐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에 대한 주목은 이 둘 간의 단순한 대립에서 복잡한 차이들, 나아가 둘 간의 계속되는 중첩과 상호교류의 역동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의 공간개념은 영토의 소유를 위해 측량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획과 지역 간의 구분이 없이 일종의 흐름(Flux)의 형태로 구현되고 표현되는 것이다.⁴¹⁾

전통적인 주체가 ‘사이’에 존재하는 주체라면 근대적인 주체는 ‘시작과 끝’에만 자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길에 있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자리하는 산이나 강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며 길의 형상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한다. 그러나 철도는 다르다. 그것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최단 거리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화한다.⁴²⁾ 인터넷이라는 인공자연에서 탄생한 새로운 주체는 주

40)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이동성은 극대화되고 아예 인공자연을 개인이 소유하고 휴대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41) 윤지영, 노상규, 「인터넷의 진화와 공간 개념의 변화」, 『경영논집』 Vol.43 No.1/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009, 86-87면.(편집)

42) 오창섭, 같은 논문, 104면.

체를 지배하는 무의식의 존재,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주체가 아닌 형성되는 주체, 하나의 실체가 아닌 적분된 주체이다. ‘사이’도 ‘시작과 끝’에도 자리해 있지 않은 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다리며 우리를 바라보는 키보드 커서처럼 ‘명멸하는 주체’가 1990년대 사이버문학을 형성하며 우리 앞에 등장한 탈근대적 주체인 것이다.

4. 나오는 말

본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기를 구획하고 확정하고자 당대를 관통하는 기술의 변화에 주목한다. ‘저장기술’과 ‘연결기술’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990년대에 일상화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근대 초기의 ‘신문’, ‘철도’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경험’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논의하였다.

문학사는 과거 문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다. 문학사 기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과거의 문학 혹은 문학적 과거는 그 자체가 불연속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의 집합이다. 문학사는 기술 대상의 복잡성을 축소하기 위해 그것을 동질 단위들로 분할, 정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 문학사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범주가 ‘시대’와 ‘장르’이다. 일반 역사이건, 문학사이건,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늘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필요하다. 분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새로운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과거의 시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이 시기를 과도기 혹은 전환기라 하고, 그것들 사이에 있는 시공간을 시대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시대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동질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시간 단위이며, 일련의 사건들과 과도기에 의해 구분된다.⁴³⁾

1990년대는 근대문학은 점차 유효성을 잃어 가면서, 현대문학은 아직

오지 않은 과도기의 시대였다. 한국지성사에서 1990년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90년대 문화예술 전반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등으로 흔히 분류되는 이 흐름은 근대 철학이 서 있는 기반을 공격한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 철학이 발 딛고 있던 ‘주체’라는 범주, ‘진리’라는 범주 등을 비판 내지 해체하며, 세계나 지식이 하나의 단일한 전체일 수 있다는 ‘총체성’ 개념을 비판한다.⁴⁴⁾ 근대문학 리얼리즘 이론의 토대가 됐던 ‘총체성’과 ‘주체’, ‘진리’가 해체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근대성은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렇다면 1990년대 탈근대시기에 발표된 소설들은 더 이상 근대문학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1990년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장정일, 신경숙, 윤대녕, 은희경 등 90년대 한국문학을 밝혔던 빛나는 별들은 근대문학의 세례를 받은 마지막 수사들이다.⁴⁵⁾ 근대문학은 종언을 고했지만 소설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한결 가볍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1990년대는 근대소설이라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은 回光返照(회광반조)의 시기였다.

시대 구분은 시대 정신의 변화를 경계로 삼으며,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시대와 시대는 겹치고 혼재되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다 어느 순간 전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만이 남게 된다. 근대의 시작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발명에서 찾지만 실제 산업혁명과 근대소설의 발전은 한참 후였다. 『데카메론』과 『돈키호테』는 새로운 형식(소설)이 아니라 익숙한 형식(로망스)을 차용해 창작되었고,

43) 이동재, 같은 논문, 320면.

44)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p.245.

45) 2000년 이후 그들의 소설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은 것은 문학적 영감과 상상력, 감수성이 더 이상 시대와 조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저히 90년대식 작가들이었다.

세계관과 소재 역시 중세적이었지만 주제 의식의 탁월함으로 근대소설의 맨 앞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는 근대와 탈근대가 혼재했던 과도기였기 때문에, 근대소설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었다.⁴⁶⁾

21세기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국문학계는 근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단은 미투와 표절로 얼룩지고 역량 있는 작가와 충실한 독자는 웹소설로 몰려갔고, 비평과 논쟁은 시들해졌다. 지금 한국 문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가 근대문학의 관행과 관습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포스트휴먼', '메타버스', '비인간행위자' 등 주제, 공간, 도구의 탈근대화는 문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대문학의 종언>을 선언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2000년대 초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이 번역 출판된 후 잠시 논쟁이 있었지만, 고진의 시각에 대한 입장과 해석의 수준에서 이루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자생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고진은 문학이 자신이 부여받은 특별한 중요성과 가치를 통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이 짊어진 지적·도덕적 과제를 수행했던 '근대문학'의 역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기에 근대문학의 종언을 이야기한 것이다.⁴⁷⁾ 문학의 역할과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대문학의 종언은 현대문학의 시작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매듭이다. 물론 근대문학 연구는 21세기에든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근대를 객관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문학사를 새롭게 고쳐 쓰고자 하는 기획의 일환인 본 논문은 시대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근대문학사의 시기를 구획하고 확정하는 토대연

46) 이용욱, 「한국 현대문학의 재영역화와 연구 방향」, 『어문연구』 제95집, 2018, 302-303면. (편집)

47) 이제 소설 또는 소설가가 중요했던 시대가 끝났고, 소설이 더 이상 첨단의 예술도 아니며, 영구혁명을 담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근대문학의 종언은 근대소설의 종언이라고 해도 무방해졌다.(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 b, 2006, 46-47면)

구이다. 따라서 이 토대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매듭으로서의 '1990년대 문학'을 작가와 작품론을 통해 정치하게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근대문학의 종언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소설의 탈근대적 맥락이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근대문학사 100년에서 기술이 문학의 창작방법론과 작가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는 1900년대와 1990년대 두 시기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1900년대 신소설과 1990년대 사이버문학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기술이 문학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변곡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시기 구분과 시대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새로운 근대문학사를 완성할 계획이다.

시대	구분	맥락
1900년대	태동기	중세를 극복하려는 문학적 움직임 시작
1910년대	도입기	일본 유학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근대'와 '근대성' 유입
1920년대	발단기	동인지문학, 신경향파문학, 국민문학과 등 근대문학이 표상
1930년대	형성기	식민체제의 일상화와 근대문학의 고도화
1940년대	침체기	혜절, 절필, 망명의 선택지와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
1950년대	모색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된 근대문학
1860년대	성립기	부채의식이 없는 명실상부한 한국 근대문학의 탄생
1970년대	구체기	한국 근대문학의 보편과 특수가 구체화(자생적 근대화)
1980년대	전성기	문학이 모든 예술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1990년대	절정기	근대와 탈근대의 혼종 - 근대문학의 절정과 환희(回光返照)

1939년 임화가 조선일보에 「신문학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한국 근대문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세문학과 근대문학의 질적 차별성을 전제로 신문학을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어로 쓰여진 문학”이라 규정한 임화의 담론은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출발선이었다. 1990년대를 근대문학의 종언기로 선언하는 것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동시에, 새로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기술과 삶의 변화』, 2005.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림, 200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1.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가라타니 고전 저,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 b, 2006.
 마샬 맥루언 저,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로버트 로스웰 파머 저, 강준창 외 역, 『西洋近代史 1』, 삼지원, 1988.
 자크로 고프 저, 유희수 역, 『서양 중세 문명』, 문학과지성사, 1992.
 존 듀이 저,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20.
 캐서린 헤일스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9.
 프리드리히 키틀러 저, 윤원화 역, 『기록시스템 1800.1900』, 문학동네, 2015.

2. 논문

- 김한식, 「현대문학사 기술에서 ‘근대’를 보는 관점의 비교 연구」, 『어문논집』 제37호, 안암어문학회, 1998, 211-229면.
 노용무, 「한국 근대시와 기차」,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7, 89-108면.
 라영균, 「문학사와 시대(구분)의 문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34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16, 315-341면.
 손예희, 「근대의 기차를 통한 상상적 시읽기 교육 방법 연구」, 『교사교육연구』 58권 3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9, 299-310면.
 오창섭, 「미디어와 근대적 디자인 수용 주체의 형성 - 기차와 시계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Vol.22 No.5, 한국디자인학회, 2009, 93-107면.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1-190면.
 윤지영, 노상규, 「인터넷의 진화와 공간 개념의 변화」, 『경영논집』 Vol.43 No.1/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009, 77-91면.
 이동재, 「근대성 담론과 한국 근대문학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65-285면.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9집, 한국근대문학

- 회, 2004, 197-228면.
- 이용욱, 「인공자연의 탄생과 문학 에콜로지—공진화와 상호강화경험의 아르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31-60면.
- 이용욱, 「인공자연의 탄생과 공존의 인문학 -90년대 사이버문학론을 중심으로」(『문화기술의 융합』 vol.7, no.4,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449-460면.
- 이용욱, 「한국 현대문학의 재영역화와 연구 방향」, 『어문연구』 제95집, 어문연구학회, 2018, 295-313면.
- 이재봉,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와 근대의 글쓰기」, 『한국문학논총』 제 45집, 한국문학회, 2007, 273-304면.
- 이종관, 「스티브잡스와 하이데거의 은밀한 조우」,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70집, 한국현상학회, 2016, 97-123면.
- D. A. Norman, "Cognition in the Head and in the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ituated Action", *Cognitive Science*, Vol.17,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periodization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 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modern
and postmodern times

Lee, Yong-wook

This paper is part of a project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t seeks to distinguish between modernity and modernity with a new cognitive framework, and to build modern Korean literature on that foundation. As a first step, we will establish the criteria that can be applied to both modernity and modernity and distinguish them simultaneously as the 'environment' and 'experience' provided by technology, and examin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n our aesthetic worldview and perceptual attitudes. In doing so, I will argue for the 1890s as the beginning of modernity and the 1990s as the end of modernity with signs of postmodernity, and define the period of Korean modern literature from the 1900s to the 1990s.

If th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of modernity are 'newspaper' and 'train', th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of postmodernity are 'computer' and 'internet'. Although they share the commonality of 'storage technology' and 'connection technology', the user environment and user experience work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e user experience of newspapers and trains is not for humans, but for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user experienc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is for both

humans and technology. This has led to postmodern notions of subject and object, subject and objectification, as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xchange reinforcing experiences.

Just as the 1990s was an ambivalent period of modernity and postmodernity, computers and the Internet, which were popularised in the 1990s, were born in modernity, but are postmodern technologies for moving beyond modernity. And in the 21st century, as 'computers' have evolved into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into the 'metaverse', the modern era has come to an end and the modern era has begun in earnest.

The role and value of literature naturally changes with the times. The study of modern literature is still necessary in the 21st century. This is because we are able to perceive 'modernity' objectively and with greater clarity. Declaring the 1990s as the end of modern literature will not only make a knot of an era, but also mark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Korean modern literature research.

Key words: Modernity, Post modernity, Modern litera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 User environment, User experience

투 고 일 : 2023년 1월 30일

심 사 일 :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3월 22일